numbers

NO. 157

2022. 8. 23.

주요 내용

1. [메타버스 세계]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 규모, 향후 10년간 34배 성장 예상!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1) 반지하 가구 실태
2)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3) 목회데이터연구소 설립 3주년 관련 언론보도(16쪽)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 규모, 향후 10년간 34배 성장 예상!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아를 둔 부모라면 '로블록스(Roblox)'란 온라인 게임이 비교적 익숙하게 들릴 것이다. 미국의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산업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로블록스에서는 유저들이 레고처럼 생긴 아바타가 돼 가상세계에서 테마파크를 건설·운영하고, 애완동물을 입양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현실의 활동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게임 플랫폼(문화·예술 분야)에서 스포츠, 국방(가상 훈련 등), 의료(의료훈련, 재활치료 등) 분야에 이르기까지 메타버스 서비스의 활용 영역 및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번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메타버스 관련 인식 조사'를 보면 '메타버스는 미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에 79%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실제 메타버스 세계 시장 규모 전망치도 연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회계 컨설팅그룹인 PWC에 따르면 2019년 455억 달러에서 2030년이면 1조 5,429억 달러로 무려 34배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난 넘버즈 107호에서 '한국 교회와 AI 현실 및 인식'을 다룬 바 있는데, 이번 〈157호〉에서는 '메타버스'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교회가 과학기술의 찬란한 결과물(메타버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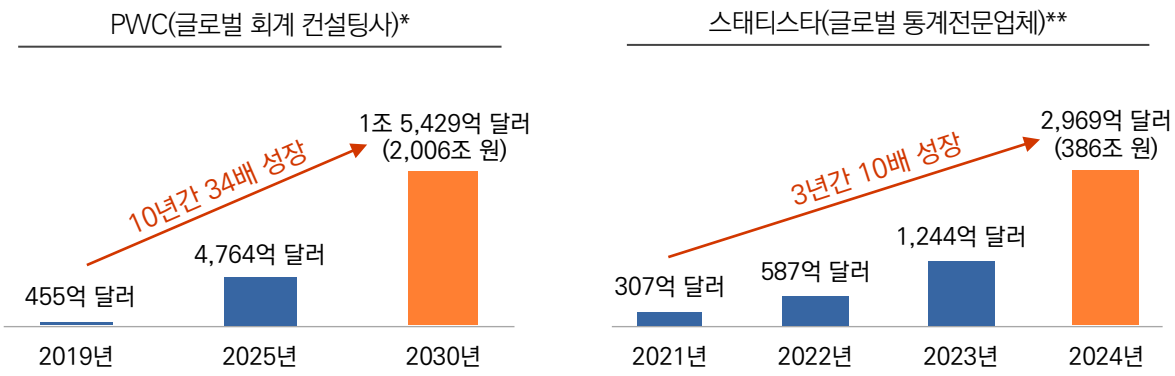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 규모, 향후 10년간 34배 성장 예상!

- 현재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의 전망치는 아직 초기 단계라 연구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회계 컨설팅그룹인 PWC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2019년 455억 달러에서 2030년 무려 1조 5,429억 달러(2,006조 원) 규모로 약 34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또 글로벌 통계 전문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307억 달러에서 2024년이면 2,969억 달러(386조 원)로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두 곳의 데이터가 동일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림]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 전망



*자료 출처 : 한국경제, 2021.05.18. '"글로벌 1700조 시장 잡아라"…한국 '메타버스 드림팀' 떴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51866621)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메타버스 가상세계 생태계의 진화전망과 혁신전략(STEPI Insight 제284호), 2021.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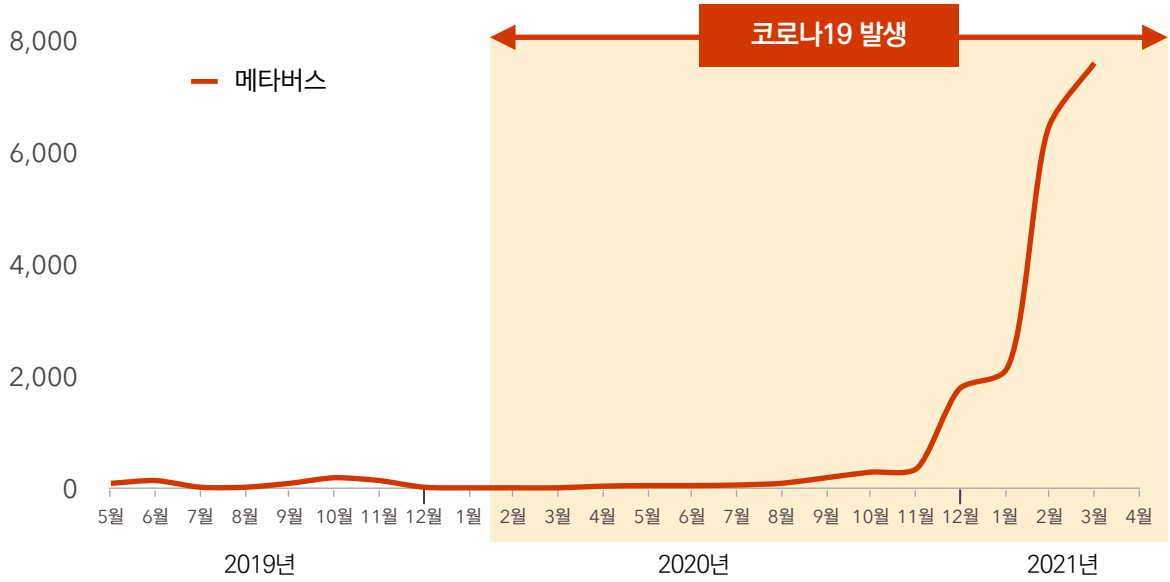
02 우리국민,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2020년 '인공지능/로봇/데이터' → 2021년 '메타버스'

- '4차 산업혁명'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가 무엇인지 물은 결과, 2020년에는 인공지능, AI, 로봇, 데이터 등이 다수를 차지했고, 2021년에는 '메타버스'가 주요 단어로 떠올랐고, 그 밖에 플랫폼, 헬스케어, 경제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 '메타버스 관련 언급량'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급격히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4차 산업혁명 연상 이미지(단어)

*자료 출처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01.07.(만 19세 이상 전국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 조사 및 집단 심층면접, 2021.09.07.~30.)

[그림] 메타버스 관련 언급량(버즈량)**



*자료 출처 :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커뮤니케이션, 메타버스와 만나다', 2022.04.28. (https://blog.naver.com/kpr_inc/222714533750)
***버즈량 : 특정 주제에 대한 웹상의 확산 지표

03 59세 이하 성인, 메타버스 인지도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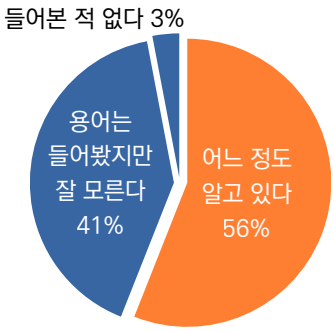
- 만 19세에서 59세 이하 온라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5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4%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 메타버스 설명문 (응답자에게 지시함)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현실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시켜 정치·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점차 주목받고 있다.

출서: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림] 메타버스 개념 인지도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메타버스 관련 인식 조사, 2022.04.08.(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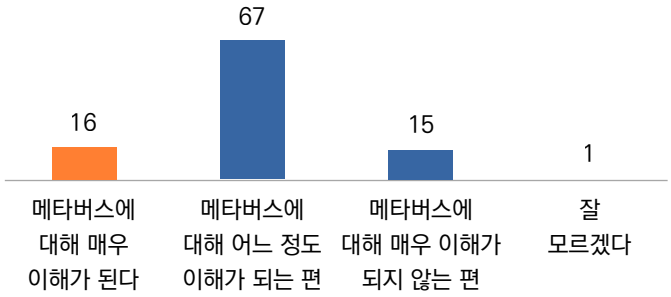
◎ 메타버스 개념 “정확하게 이해한다” 16%!

- 이번에는 현재 가장 메타버스를 닮은 기업으로 꼽히는 메타(구 페이스북)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그림] 메타(구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설명문

> 메타버스는 때에 따라 3차원으로 확장되거나 실제 세계에 투영되기도 하면서 현재 온라인 소셜 경험의 혼합체로 다가올 수 있다.
>
>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실제로 함께 있는 듯한 몰입감 높은 경험을 공유하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림] 메타(구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설명문 이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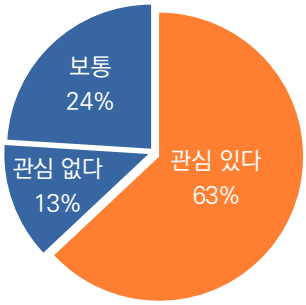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메타버스 관련 인식 조사, 2022.04.08.(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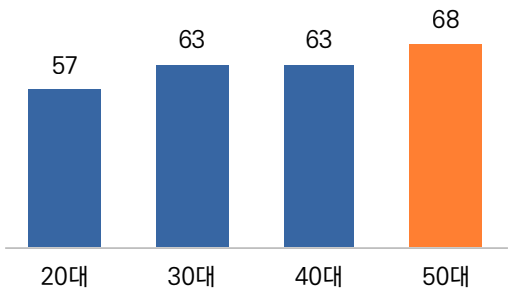
◎ 메타버스, ‘고연령층’에서도 높은 관심도 보여!

-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매우+약간)는 63%로 비교적 높았고,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층(50대)에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메타버스 서비스 관심도 (중복응답)



[그림]메타버스 서비스 연령별 관심도 (‘관심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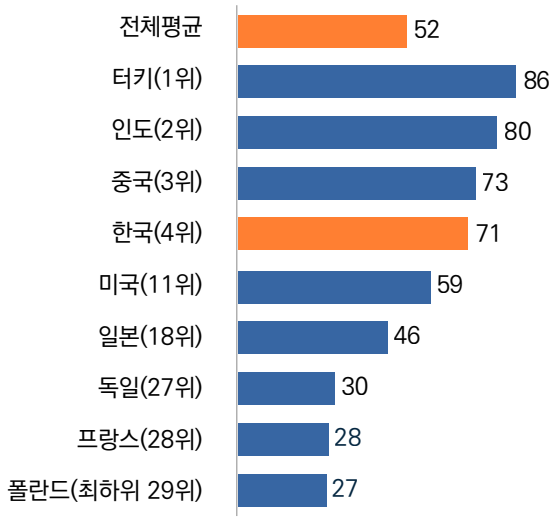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메타버스 관련 인식 조사, 2022.04.08.(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1.20.~24.)
**5점 척도 질문으로 ‘관심있다(매우+약간)’ 관심없다(전혀+별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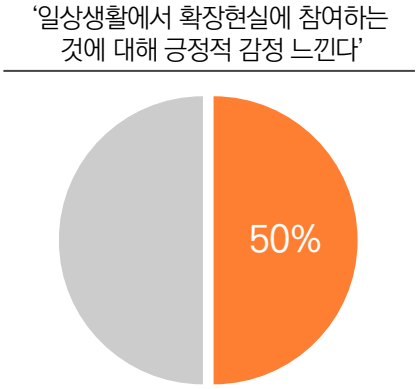
04 ‘메타버스 친숙하다’ 세계 29개국 평균 52%, 한국은 71%로 상위권(4위)!

-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메타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친숙함을 느끼고 있을까?
- 시장분석기관인 입소스가 29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52%가 메타버스에 친숙(익숙)하다고 답했다. 터키가 86%로 ‘메타버스 친숙도’ 1위였고, 한국은 상위권인 4위(71%)에 랭크됐다. 중국이 3위(73%)에 랭크된 점이 눈에 띈다.
- 미국은 11위로 중상위권, 일본은 18위로 중하위권으로 조사됐다.
- 한편 29개국 성인 중 절반(50%)은 ‘일상생활에서 확장된 현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메타버스’와 ‘확장현실(XR)**’ 등 신기술에 대한 친숙도와 호감도가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메타버스 친숙도*** (세계 29개국 중 주요국, %)



[그림] XR(확장현실)에 대한 인식 (동의율***, %)



*자료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입소스(Ipsos), How the world sees the metaverse and extended reality(세계는 메타버스와 확장현실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2022.05.25.(세계 29개국 성인 21,005명, 온라인조사, 2022.04.22.~2022.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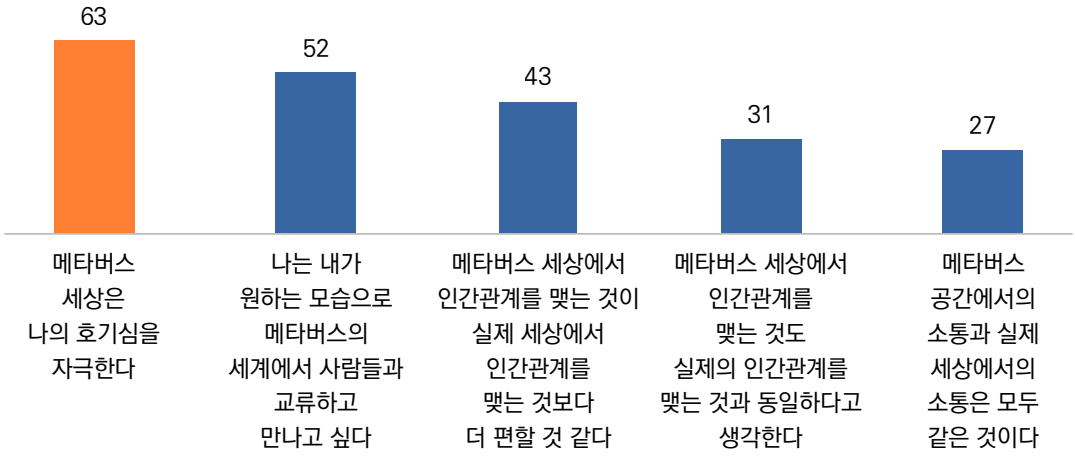
**메타버스 관련 주요 용어 설명
·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VR(증강현실), AR(가상현실) 등 가상과 현실이 실감 있게 공존,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
· 증강현실(VR; Virtual Reality): 실제처럼 느껴지는 체험을 지원하는 현실과 차단된 가상환경
·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상호 작용하는 세계

***각각 친숙하다(매우+약간), 그렇다(매우+약간) 비율임

05 “메타버스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 52%!

- 메타버스는 확실히 현대인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다(63%). 사람들은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하고(52%), 메타버스 상에서 인간관계가 실제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보다 더 편할 것(43%)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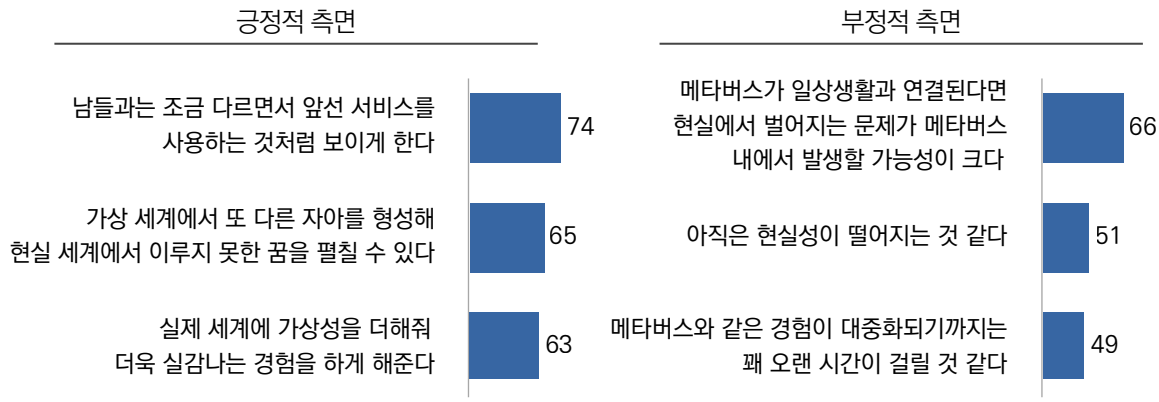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메타버스 관련 인식 조사, 2022.04.08.(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1.20.~24.)

◎ 메타버스 긍정 측면 : ‘현실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꿈 펼침’ vs 부정 측면 : ‘현실성 떨어짐’

- 메타버스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항목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메타버스는 ‘남들과는 조금 다르면서 앞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74%)’, ‘가상의 세계에서 또 다른 자아를 통한 꿈 실현 기회이며(65%)’, ‘더욱 실감나는 경험(63%)’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 반면, ‘메타버스 내에서도 현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66%)’에 대해 염려하고, ‘낮은 현실성(51%)’과 ‘낮은 대중화 가능성(49%)’을 지적하는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았다.

[그림] 메타버스 긍·부정 평가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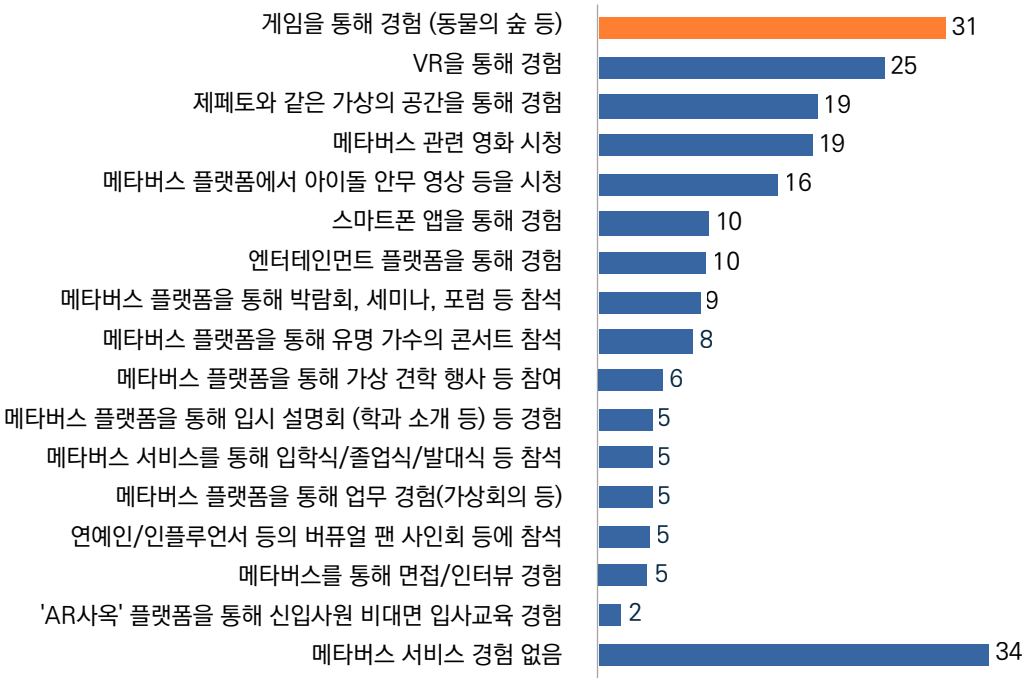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메타버스 관련 인식 조사, 2022.04.08.(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1.20.~24.)

06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 ‘게임(31%)’을 통한 경험률 가장 높아!

-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게임을 통해 경험(31%)’이 가장 높았고, VR(증강현실)을 통한 경험(25%), 제페토와 같은 가상 공간을 통한 경험(19%), 메타버스 관련 영화 시청(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림] 경험해 본 메타버스 서비스 종류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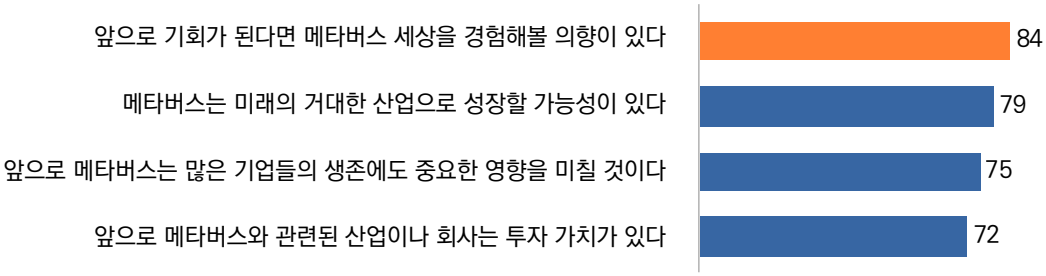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메타버스 관련 인식 조사, 2022.04.08.(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1.20.~24.)

07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 경험해 보고 싶다’ 84%!

- 앞으로 메타버스는 미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79%), 많은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75%),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타버스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어한다(84%).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이나 회사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72%)

[그림]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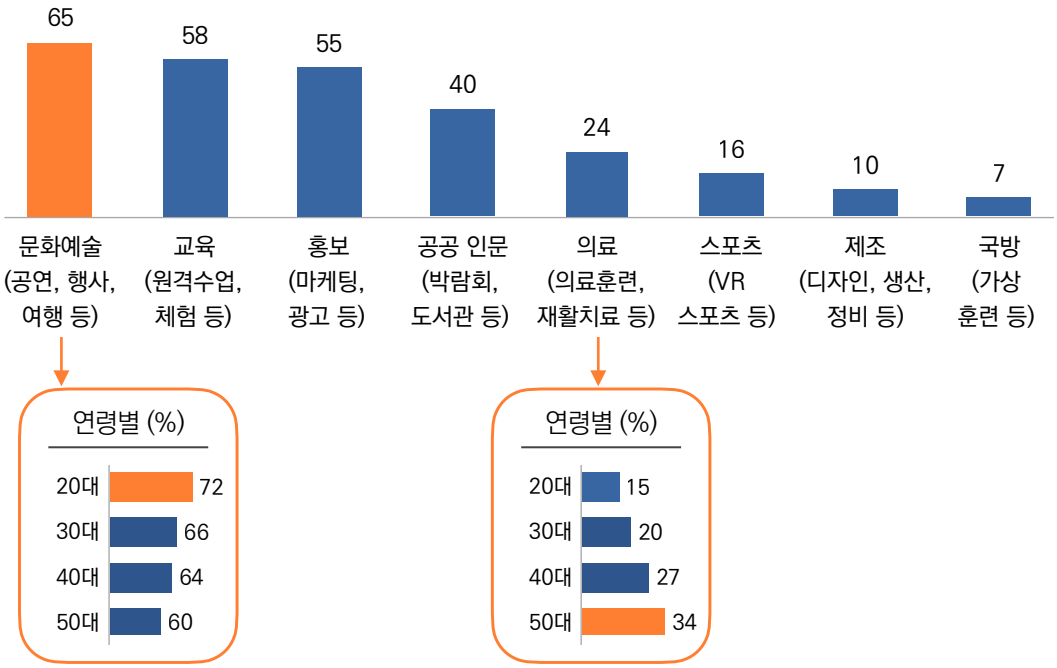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메타버스 관련 인식 조사, 2022.04.08.(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1.20.~24.)

◎ 향후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예상 분야 1위, '문화예술분야' 65%!

-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되는 메타버스 서비스로는 '문화예술(공연, 행사, 여행 등)' 분야가 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원격수업, 체험 등)' 58%, '홍보(마케팅, 광고 플랫폼 등)' 55% 등의 순이었다.
- 연령별 응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저연령층'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를, '고연령층'은 의료 훈련, 재활치료 등의 '의료' 분야 활성화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는 점이다.

[그림] 향후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분야 예상 (1~3순위, 중복응답,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메타버스 관련 인식 조사, 2022.04.08.(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1.20.~24.)

시사점

4차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날마다 뜻 모를 새로운 기술 용어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요즘 관심을 모으는 IT 용어가 '메타버스'이다. 각종 매체에서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날 정도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를 조사했을 때 메타버스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현상으로 메타버스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3쪽) 전 세계 29개국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친숙도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우리나라가 4위에 오를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해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6쪽)

메타버스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를 각종 매체와 글들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많이 들어봤고,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설명도 들어봤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조사회사 엠브레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메타버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6% 밖에 되지 않는 것이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을 잘 보여준다.(5쪽) 미지의 것에 대해 알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메타버스에 대해 우려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상에 올라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교회 나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성도들, 특히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한 여러 고민 가운데 하나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므로 온라인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곳에서 예배 및 각종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성도들을 붙잡고, 또 전도의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이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을 낳는 것이다.

목회 현장에서 메타버스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는 주장이 있다. 메타버스 속에서 예배와 교육은 물론이고 성지 체험도 메타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다. 그 외에 메타버스에서 세례식, 성찬식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모 단체에서는 가상 현실 속에 교회 건물과 강의실을 구현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강의를 수강하는 메타버스 강의를 개설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카카오의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제이알월드(대표:조현길)가 이용자들이 가상현실 속에서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종교기관·단체와 제휴 및 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1] 제이알월드 메타버스 내의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공용 광장에 이용자의 종교 활동을 지원하고 종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과 건축물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른바 '메타버스 교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메타버스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많다. 유튜브에서 메타버스와 기독교, 메타버스와 교회를 검색해 보면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다. 메타버스의 목회적 활용에 대한 비판은 실재와 가상 현실의 혼재에 따른 신앙의 변질과 왜곡을 경고하는 비판도 있고, 메타버스는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뿐이지 실재를 대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으로는 메타버스로 인해 가나안교인이 양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메타버스의 시대에 교회 충성도는 약화되고 클릭 한번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신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메타버스 교회를 설립한다고 하지만 메타버스 교회는 성경적 교회에 온전하게 부합하기는 어렵다. 메타버스에서 결여된 것이 바로 '공동체성'이다. 물론 메타버스도 참여자들의 상호 교류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줌 미팅을 하면서 느끼듯이 온라인에서의 만남과 대면 만남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메타버스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든 소극적으로 대응하든 대 전제조건은 교회 본연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성큼 우리의 곁으로 다가올텐데, 교회는 공동체성을 담보하는 선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1)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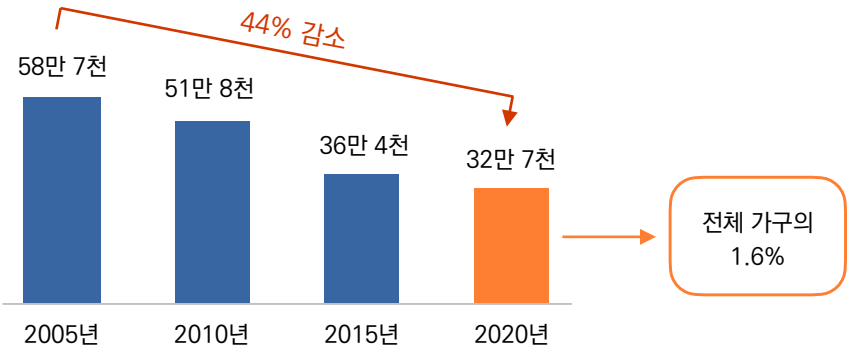
1.[반지하 가구 실태]

2.[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반)지하 가구, 2020년 기준 전국 32만 7천 가구!

-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민'들의 사연이 방송에 나오면서 반지하 가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지하 거주 가구 실태'를 살펴보았다.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반)지하 가구는 32만 7천 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1.6%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 우리나라 (반)지하 가구 수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58만 7천 가구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하(반지하) 가구 수 변화 추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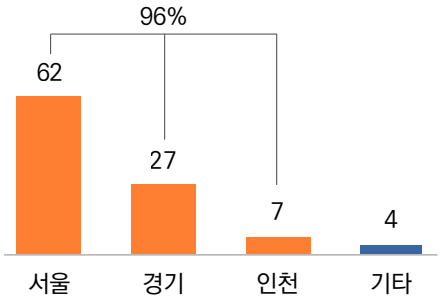


*자료 출처: 중앙일보, "폭우 치떨린다" 반지하 62만명…현실판 '기생충' 참담한 현장, 2022.08.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572#home)
**원자료 : 통계청, 2005~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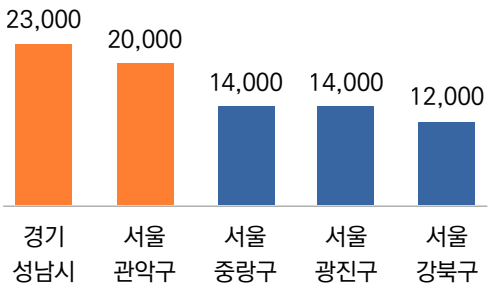
◎ (반)지하 가구 대부분(96%),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 전체 (반)지하 가구 '32만 7천 가구' 가운데 수도권 거주가 96%(31만 4천 가구)로 압도적이었고, 그 중 서울 거주 가구 비율이 62%로 가장 높다.
- 국토연구원의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2020.04)에 따르면 이렇게 지하(반지하) 주택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유는 '높은 주거비 때문'으로 분석했다.
- 한편 전국 시·군·구 중 (반)지하 거주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성남시'와 '서울 관악구'이다.

[그림] (반)지하 가구 지역별 분포 (%)



[그림] (반)지하 가구 수 상위 5위 지역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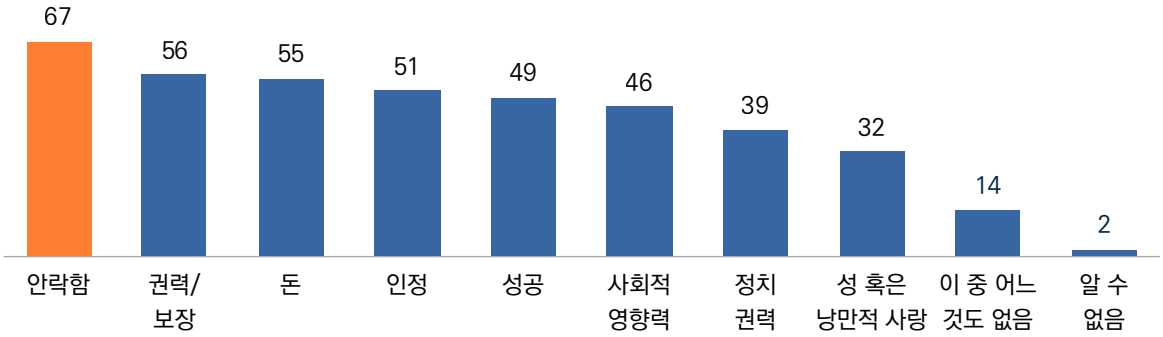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폭우 치떨린다" 반지하 62만명…현실판 '기생충' 참담한 현장, 2022.08.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572#home)
**원자료 출처 : 통계청, 2005~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도자료

미국 목회자 3명 중 2명(67%),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안락함(Comfort)'!

- 미국 라이프웨이리서치에서 미국 개신교 목회자에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목회자 3명 중 2명(67%)은 '안락함'을 꼽았고, 다음으로 '권력 또는 미래에 대한 보장' 56%, '돈' 55%, '(타인의) 인정'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가장 많은 교회가 1차원적 세상의 안락함을 최고의 우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두번째 우상은 사람들이 이미 가진 안락함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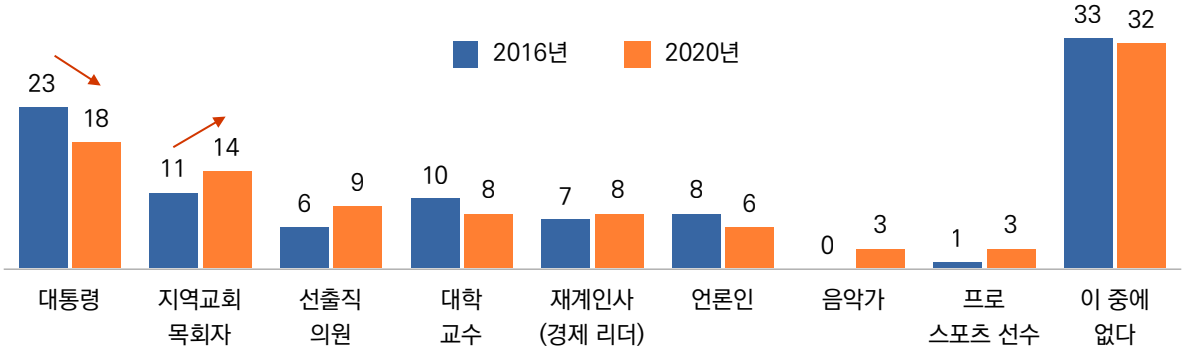


*자료 출처: Lifeway research, Paster' Views on Modern Day Idols, 2022.08.09.(미국인 개신교 목회자 1,000명 대상, 전화조사, 2021.09.01.~30)

◎ 미국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건강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직업, '목회자'가 2위로 꼽혀!

- 미국 라이프웨이리서치가 미국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 건강한 대화를 이끌수 있는 최적의 직업으로 '대통령(1위, 18%)'에 이어 '지역교회 목회자'가 2위(14%)로 선정됐다.
- 2016년 9~10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을 꼽은 미국인은 23%에서 18%로 줄어든 반면, '지역교회 목회자'는 11%에서 14%로 3%p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과는 무척 대비되는 조사 결과이다.
- 반면, '이중에 없다'는 응답은 미국 국민 3명 중 1명꼴 이었다

[그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건강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직업 (상위 8위, %)



*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American View on Healthy Conversations, 2022.07.26.(미국인 1,005명 대상, 온라인조사, 2021.09.03.~1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08호(2022년 8월 3주)

-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대통령 취임 100일, 현 정부 첫 분야별 정책 평가 등

◎ 사회 일반

['민증 없는' 범죄자] 5년간 32만명...강도 이틀에 1건, 성범죄 하루 3.8건
아시아경제_2022.08.22.

한국에만 있는 산후조리원
중앙일보_2022.08.19.

배달의 배신… 물가 올리는 '플랫폼' 됐다
조선일보_2022.08.22.

채솟값 오르면 왜 농민도 힘들까
노컷뉴스_2022.08.22.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야 할까? –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리서치(여론 속의 여론)_2022.08.16.

● 무너지는 필수 의료, (조선일보)

1. 소아과 의사 28%, 흉부 35%… 낮은 충원율, 필수의료 무너진다 _2022.08.16.

2. 늙어가는 의사들… "10년내 수술대란 온다" _2022.08.17.

3. "외과수술 할수록 적자… 원가 80%인 수가 정상화해야" _2022.08.18.

● 대중국 인식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58% [한·중 수교 30년]
중앙일보_2022.08.21.

MZ세대 79% "中 싫다"… 北-日보다 호감도 낮아
동아일보_2022.08.22.

한국인 '중국 반감' 88%…기획된 정서인가, 위협이 큰 탓인가
한겨레_2022.08.22.

◎ 청소년 / MZ세대

"나 임신했어" 이 말에 쫓겨나 모텔 전전…'고딩엄빠' 생존기
중앙일보_2022.08.18.

5년간 '극단적 선택' 소방관 절반이 MZ세대… '신변 비관' 최다
국민일보_2022.08.17.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20대, 다중채무 증가율 최고… '빚'나는 청춘
국민일보_2022.08.22.

◎ 경제

'금융 시한폭탄' 다중채무자 446만 역대 최대치
중앙일보_2022.08.16.

韓 상속세율 OECD 1위…상속세제 개편해 경영환경 개선해야
연합뉴스_2022.08.17.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들, 작년보다 더 벌었다…매출 28% 증가
연합뉴스_2022.08.17.

소득 하위 20% 가구, 필수생계비 비중 70% 넘어… 월 28만원 적자
동아일보_2022.08.22.

◎ 건강

밥 잘 먹고 잘 웃는데… 나도 우울증?
동아일보_2022.08.21.

◎ 국제

北, GDP의 15% 이상 군사비로 지출…규모는 韓의 4분의1 안돼
연합뉴스_2022.08.20.

자전거 생산량 자동차 추월했지만…교통수단 이용률 5% 그쳐
한겨레_2022.08.21.

◎ 트렌드

"5년째 같은 회사 다니는데… 나는 뒤처진 건가요?"
조선일보_2022.08.22.

오픈런(Open Run)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_2022.08.17.

◎ 기독교 / 종교

하루 9.8시간, 주 5.7일 사역하는데 월 260만원… 팬데믹 후 온라인 부담까지
국민일보_2022.08.18.

美 10대 청소년 소셜미디어 의존 높아… 교회, 청소년 위한 프로그램 고민해야
국민일보_2022.08.17.

MZ세대 미 기독교인 3명 중 2명 "한 달에 한 번 예배 안가"
기독일보_2022.08.1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인구 절벽 시대의 한국교회, (국민일보)

1. 늙어가는 농촌교회… 어르신 사역 위해 '현장 목회' 발품 _2022.08.16.

2. '젊은 도시' 속 교회들, 학원·문화원 등 '눈높이 사역' 주력 _2022.08.17.

3. 인구 느는 1인 가구·다문화·은퇴 세대 껴안아라 _2022.08.18.

◎ 목회데이터연구소 설립 3주년 관련 언론보도

매주 '넘버즈' 발송… '감' 아니라 통계에 근거, 설교하도록 도와
국민일보_2022.08.22.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횃불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롱,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종,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응림, 전치영, 정기묵,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헌,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